

법문 요청 들어오면 '원근 불문'

“딱 딱 딱...”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인 목탁을 치기 시작한다. 곧 이어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천 이백 오십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한글 불설 아미타경”이 끝나자 ‘예불문’으로 이어진다. ‘한글 불설 무량수경 동방계’가 시작되자 오른손으로는 목탁을, 왼손으로는 북을 치며 “나무아미타불”을 연이어 외친다. 그리고 ‘발원문’을 낭독한다.
“...예토의 중생들은 아미타부처님의 사십팔원의 맹세를 신봉하고 지금 본원염불도량에서 일념으로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평화에 의한 국제민안과 한국의 남북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염원 하오며...”

‘반야심경’을 마지막으로 연천 오봉사 조실 효란(曉巖·88) 스님의 저녁 예불이 끝난다. 스님은 매일 오전 5시, 10시, 오후 5시 세 차례 대웅전인 ‘무량수전’에서 예불을 드린다.
올해 미수(米壽)를 맞은 효란 스님. 오봉사 무애원(無礙院)에서 빈 스님은 예삼보다 정정했다.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으며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 열정이 느껴졌다.

카랑카랑한 목소리 '염불'의 힘 느껴져 예불시간 외엔 집필 몰두, 토론도 즐겨

스님의 주요 일과는 강의와 집필활동과 토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말라하는 곳은 어디든 간다. <무량수경>을 비롯해 정토 신앙과 관련한 강의를 주로 하신다.

스님을 뵈던 날 스님의 손가락에 빨간 물이 들어 있었다. 원고를 교정하느라 빨간 사인펜을 장시간 들고 있다보니 물이 든 것이다.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다. 이제는 노환으로 인해 보정기가 없으면 잘 들리지도 않지만, 점점 더 점점해지는 눈을 치켜뜨며 새벽부터 집무실인 영현각에서 원고를 다룬다.

스님은 토론하기를 즐긴다. 정법을 찾는 데 나아가 지위 고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짚에 찾아온 젊은 스님과 며칠 동안 계속해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스님을 열정적인 구도의 길로 나서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

스님은 집안의 도움을 받아 제2고보(현재 경복궁)에 다닐 때 첫 번째 운명적인 사건에 부딪힌다. 평소 ‘조센징’이라며 한국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본인 선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당연히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스님은 한국 유학생들의 모임인 ‘자속회(自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효란 스님은 “염불은 부처님이 공덕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며 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日 와세다대학 문학부 나와

효란 스님은 | 1919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했다. 1931년 수덕사 만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40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46~65년 경성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에서 문학사를 강의하기도 했다. 68년 동천 스님을 은사로 건당할 스님은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83~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겸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 서원사·연천 오봉사 조실이다.



콘스님 편안하십니까

효란 스님 (연천 오봉사 조실)

‘肅會’ 회장을 맡으며 독립운동을 했다. 결국 일본경찰에 체포된 스님은 3년 3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이 때 스님은 두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한다. 형무소에 있을 때였다. 다른 책은 반입이 금지됐지만 불교서적만은 예외였다. 당시 형무소 교무과장이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 스님은 300여권의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불법의 바탕을 다지게 된다.

해방 후 지적인 탐구를 계속했지만 당시 한국불교 현실과 비교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불교라는 것은 결국 깨닫는 것이지만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받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다. 구제가 곧 성불이고 이것이 대승불교다. 또 한국은 참선을 위주로 하지만 염불을 해야 속도운회를 해탈할 수 있다.”

스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구도의 길로 나섰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다서 법문할 때는 태극기 게양할 것 요구 저서 '정토삼부경 강설' 등 50만부 법보시

타이완.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청담 스님 재일 때 만난 일본스님으로부터 <정토삼부경>을 얻고 ‘왜 염불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중생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중생들에게 가는 것이다. 결국 염불은 부처님이 공덕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스님은 1979년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1년 중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에서 생활을 하며 구도의 길을 계속 걸었다. 스님의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구도열에 일본스님들도 감복해 400여 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청했다.

일본사회에서 법문했던 초기, 스님은 법문하는 짚에 태극기를 게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스님이 일본 사회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981년 오봉사를 건립한 후 스님이 주력했던 것은 법보시. 스님의 저서 <정토삼부경 강설>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 <불교의 전통신앙> 등을 출간해 현재까지 50만부를 법보시했다. 이러한 스님의 열정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걸까.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 오봉사 무량수전 주연이 스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極重惡人唯稱佛(극중악인유칭불)
我亦在彼攝取中(아역재피삼취중)
煩惱障眼雖不見(번뇌장안수불견)
大悲無倦常照我(대비무권상조아)

‘죄가 무거운 악인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함으로써 죄업을 소멸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나 역시 그대와 같이 염불로써 구제 받고 있으니, 번뇌의 장애로 인해 보이지는 않으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설 새 없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 고 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일본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날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說禪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일체중생 구제가 '본원'의 핵심
'나무아미타불' 할때 업장 소멸
"늘 보은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각종 도서로 가득한 효란 스님의 서재. 영현라 스님은 저서 <경토삼부경 강설>을 비롯해 50만부 이상을 법보시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효란 스님의 가르침

중 국불교의 <선정쌍수집요(禪淨雙修集要)>에 보면 입제종의 육조이신 혜능 대사 제자들이 혜능 스님에게 "염불 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입구의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청명염불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집착의 괴로움을 떨어버리는 묘도(妙道)요, 두 번째 성불을 이루고 조사되는 정인(正因)이요, 세 번째 삼계인천(三界天人)의 안목이요, 네 번째 마음을 밝히고 불성을 보는 혜등(慧燈)이요, 다섯 번째 지옥을 깨뜨리는 망장이요, 여섯 번째 많은 율바르지 못한 것을 베는 보검이요, 일곱 번째 오천대장(五千大藏)의 결수요, 여덟 번째 팔만총지(八萬總持)의 중요한 길이요, 아홉 번째 흑암(黑暗)을 여는 명등(明燈)이요, 열 번째 생사(生死)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요, 열한 번째 고해(苦海)를 건너 늘 다투고 갈 배요, 열두 번째 삼계(三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열세 번째 최존최상(最尊最上)의 묘문(妙門)이며 무량무변의 공덕이나라.

그러나 이 입구를 가려 염불하는데, 일이 없어도 일이 있어도 인락할 때도 병고(病苦)가 있을 때도 살아서나 죽어서라도 일관해 염불하는 것에 대한 일념이 분명하면 또 다시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서 길을 찾으랴. 이른바 입구미타무별념(一句彌陀無別念)하면 불노란 지도서방(西遊)을 인도하여 준다. 이것을 번역하면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불하면 손가락을 핏기는 힘을 내지 않아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선을 해서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선은 삼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번뇌덩어리를 없애므로써 화두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근기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따라서 참선보다 염불을 통해 성불도에 입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토문을 가는데 저어하는 것은 두터운 업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 "제불전탄권유(諸佛贊嘆勸誘)"에 보면 업장이 두터워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불수행은 너무나 쉬운 행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마음' 믿고
일념으로 염불을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승 불교는 출·재가 모두 제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방편이 바로 염불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승돈과 승바닥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연기(緣起)와 삼법인(三法印), 팔정도(八正道)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육바라밀인데, 염불이 바로 연기와 삼법인, 팔정도, 육바라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에입니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물이 흐르다가 둥근 것을 만나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것을 만나면 네모가 됩니다.

원효 스님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할 때 염불신앙을 권장했습니다. 천촌만리(千村萬里)를 무애고(無碍鼓)라는 바가지로 두드리며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를 전했고, 자장 율사를 위시해 의상 대사 등 여러 후학들이 정토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원효 대사의 무애 염불은 스님이 입적하신 후 한반도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효 스님의 염불법과 염불관을 스님 입적 후 500년이 지난 일본에서 성립된 '신란(親鸞,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 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란 스님의 염불신앙은 원효 스님이 주장하는 '왕생(往生)의 정인(正因)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이요, 조인(助因)은 염불'이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란 내가 원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구제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으나 제일 쉬운 길은



'본원'을 믿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원'이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즉 모든 중생을 하나로 꿰집듯이 구제하고자 말겠다는 맹세이자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 명호인데, '나무'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몸체입니다. 즉 염불은 부처님께서 마음과 몸을 내내서 결사적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동안 나의 과거 80억겁의 업장이 소멸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큰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염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중생들도 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승 선도 대사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계행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차차 악신이 소멸돼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되고 무계(無戒)가 유계(有戒)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오직 당신의 힘에 의해 이 몸이 부처가 되는, 환희와 늘 보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0>



머슴노릇하는 CEO가 주지 소임

그날 제가 찾아가던 절은 마침 여러 법회가 봉행 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절에 사람들의 왕래가 이어졌고 전각마다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웅전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선원에서는 환참 안거중인 스님들이 집심 공양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느라 툭툭히 경내 이곳저곳을 포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절은 수행하는 스님들과 범문 들으러 온 신자들로 북박북박해야 할 맛이 납니다. 한바탕 야단법석이라도 치른 듯 회오리바람 일으키며 사람들이 떠나가자 후원 수돗가에는 설거지감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대중들 집심 공양 챙겨주느라 정자 공양주보살과 도와주러 온 신도들은 아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저태 산같은 설거지를 어찌 해결하나 망연하게 손 놓고 있는데 누군가 소매를 걸어붙이고 용감하게 설거지통 속에 두 손을 속 집어넣습니다. 주지소임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만 두십시오." "제발 저리 좀 가십시오." 신도들이 놀라서 황급히 달려들어 주지스님을 설거지통에서 떼어놓으려 하지만 스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후딱 해주세우, 후딱" 보다 못해 공양주보살은 외곽 신경질까지 부릴 정도였습니다. "저리 좀 가시라구요. 옷 버리시잖아요." 그러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도와줄 테니 어서 끝내고 공양들 드시게."

매 놓고 있던 보살님들은 주지스님 손에 그릇이 닿기 전에 얼른 얼른 빼앗아 일사천리로 설거지를 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은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긴 뒤 가지런히 모아졌습니다. 주지스님이 체통도 없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공양주보살의 짜증을 받아주는 모습은 평소 '주지스님은 친견하기 어렵다'는 재가불자의 선입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선원에서 정진중인 젊은 스님들이 모습을 보일 때마다 행여 불리한 구석은 없는지 근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오기는 불자들에게 일일이 차를 대접하며 근황을 물어가면 서도, 때때로 열리는 법회마다 가서 장삼 다 갖추고 여법하게 봉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지'

아이고... 그건 머슴 노릇하는 자리아'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스님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끌어안는 자리아다 보니 <선림보훈>에서는 아예 주지 노릇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령을 일러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지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일이 번거로워도 두려워 말고, 일이 없다 해서 굳이 찾지도 말며, 시비분별을 알아야 한다." "주지 소임을 사는 데에는 어질·총명·용기의 세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어진 자는 도덕을 행하여 교화를 일으키고 상하를 편안하게 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총명한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안위(安危)를 식별하며 불륜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살피고 시비를 분별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한번 했으면 의심치 않으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를 반드시 제거한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총림이 일어나고 하나가 모자라면 기울 것이며, 두 가지가 부족하면 위태롭고, 세 가지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주지의 도는 폐지될 것이다."

"훌륭한 주지는 턱을 길러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으므로써 덕을 지닌다. 덕스러우면서 도 은혜를 기를 수 있으면 굴욕스럽지 않고, 은혜로우면서도 덕을 실천하면 은택(恩澤)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덕과 은혜가 함께 쌓여가며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옛 성인께서 수행자들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총림을 세워 그들을 머물게 한 뒤에 주지를 뽑아 통괄하게 한 것"이 주지 소임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소임은 사리사욕을 떠나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허드렛일에 종일 힘을 쓰는 머슴노릇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조(佛祖)의 맥이 청정하게 그 절속에 살아 숨 쉬도록 납자들을 맞이하고 키우는 데에도 일가견을 지닌 CEO(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 불교계 신문에 연일 오르내리는 사찰의 주지 선출과 관련한 기사를 보자니 자못 기대가 커집니다. 묵묵하게 머슴 노릇할 청정하고 유능한 CEO인 '주지' -과연 어느 분이 제격일까요? ■ 이미경(동국대역사학 석사) 역임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혜거스님의 참선지도로 수련회가 진행 됩니다. 특히 혜거스님의 참선법론과 개인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하계수련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대학생이상 남·녀 일반인 35명씩(선착순)
- 일 정 : 3박 4일

1차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2차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3차	7월 28일(금) ~ 7월 31일(월)

-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강원도 홍천 소재)
- 참가비 : 7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3040-51-017583 예금주:손수열)

-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 접수 및 문의 : 홍천 선문장 (TEL : 033)433-5845~6 / FAX : 033)433-5847)
- 교통편 : [승용차] 서울 - 88도로 - 양평 - 홍천(44면국도) - 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향남,현리방향) - 451번지방도로 (7km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팻말 보임)

-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행 버스 - 1번홈에서 내촌혹은현리행 버스 승차 -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대한불교 조계종 金剛禪院

자원봉사로 신비로움 가득! 여름휴가 계획 끝!!

2006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부모와 자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족의 화합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청정한 산수에서 일한 여름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모집합니다. 우리 가족의 참여로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너눔과 감동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 활동기간 : ○ 1차 (7월 17일 - 7월 19일) ○ 2차 (7월 24일 - 7월 26일) ○ 3차 (7월 31일 - 8월 2일) ○ 4차 (8월 7일 - 8월 9일) ○ 5차 (8월 14일 - 8월 16일)

- 활동일수 : 2박 3일 자원봉사활동 및 여름 휴가(참가비: 가족당 3만원)
-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자녀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신청서는 연꽃피는집 홈페이지 www.yeongbulwon.or.kr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활동내용 : 자원봉사, 등산/산책, 가족간대화, 야간영화관람, 명상음악감상, 물놀이 참나를 찾아가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 인센티브 : 가족자원봉사 참여 가족에게는 자녀 소속학교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통지하고 연말평가시에는 우수 가족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 가족자원 봉사의 장점 및 긍정적 효과

-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가족이 함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해짐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 다른 가족구성원과도 친밀감이 형성되어 이웃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찍이 자원봉사 경험을 함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 가족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

2006 여름 불교학교 시설 무료개방안내

여름불교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사찰에 시설을 개방합니다.

- 숙박 200평, 대강당 150평 (음향, 조명, 노래방, 영화관람 대형스크린)완비
- 주차 축요형 시 그룹사운드 로터스 무료공연 ● 맑은 냇가 넓은 운동장 유
- 중앙고속도로 가산 IC에서 10분거리 (자원봉사기회제공) ● 식단 및 불교학교프로그램은 주최 측 계획 및 운영
- 신청 및 문의 : 사회복지법인 迦佛院 법인사무실 ☎ 054)971-2815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 ☎ 054)971-6063-4, FAX 054)971-0355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 3번지 연꽃피는집 (연꽃피는집은 경북에서 제일 큰 무료치매중풍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